

자연 속에 성장

송채원

코로나19가 시작되고 3년 동안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와 집콕 생활이 증가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 마스크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스크 없이는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제한되고 패션아이템으로 사용될 만큼 마스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 마스크 벗은 모습이 더 낯설고 어색하게 느끼게 되었고 자가 키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를 찌르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로 생겨난 신조어로 위드 코로나, 코로나 블루, 언택트,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팔꿈치 인사 등 생소한 단어와 문구도 많이 사용되면서 이제는 친숙한 단어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변화된 일상 속 자연이 주는 생태공간에서 삶을 성찰하며 다양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지난 3년간 나는 자연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집에만 머물면서 쌓였던 우울함과 답답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 가족은 주말농장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영종에 있는 작은 농장에 가서 배나무, 상추, 토마토, 가지, 수박, 호박, 마늘, 옥수수, 고구마, 고추, 깻잎, 배추, 오이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을 가꾸며 자연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씨앗을 심은 곳에 물을 주고 햇빛과 공기를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이 내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왜냐하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작은 농작물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자라는 것을 보며 스스로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농작물도 자연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새롭게 바뀐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며 지내왔다. 내가 적응하지 못한 시간과 그 속에 불평 불만 가졌던 마음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흙을 다루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자연의 조화로움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었다.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생활하는데 활력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과 깊은 소통으로 더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나마 삶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활기를 얻을 수 있었다. 내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었던 주말농장에 감사함을 느끼며 심어둔 작은 채소들에게 이제 내가 위로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은 함께 공존하여 삶을 살아간다. 자연에서 씨앗이 싹을 트

이고 뿌리를 깊이 뺏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 걸음마를 떠는 과정에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때 비로소 생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찰의 기회를 준 자연에게 고마움을 가지며 나도 기후위기나 환경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을 잘 가꾸고 친환경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 내가 자연에서 성찰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자연을 사랑하며 함께 생태적 삶을 살아가길 꿈꿔본다.